안녕하세요. 저희는 7조이고 저는 발표를 맡은 김혜주입니다.

우선 저희 조가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 보고자 한 점은 과연 국가의 경제 수준은 여행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수준과 문화 이들 간의 여행 수요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정리를 하며 시사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앞서 말씀 드린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릴 것이며,

분석 방법에 있어 저희는 가설을 세워두고 검증하는 방법으로 하였음을 염두에 두어 가설 수립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데이터 수집을 하여 분석하게 되었는 지에 대해 말씀 드리며,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을 설명하기에 앞서, 여행에는 무엇과 무엇이 필수적인가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돈 혹은 시간이 아닌 돈과 시간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둔 키워드는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 여행입니다.

처음 주제 선정을 하기에 앞서 고민했던 내용은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여행을 가지?로 시작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패션과도 연관지어 보고,

근로자의 임금과 시간이 주요인이라면, 국가경제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고려한 결과,

경제수준과 문화와 관련하여 해외 여행 수요 전망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워라밸. 지난 7월부터 법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많은 직장인들은 저녁이 있는 삶, 혹은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래 제시된 결과는 위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만을 원인으로 추측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FSC항공사 보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와 같은. LCC항공사의 성장을 통해 여행에 대해 좀 더 접근성이 좋아졌고, SNS활성화, 주변국가의 경제 정책 등 젊은 층을 비롯하여 해외여행 빈도수가 높아졌으며, 여행 예능이 성행하고 여러 방송매체를 통해 쉽게 접하는 등 여러 요인을 겹쳐 미루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살펴볼 점은 3년간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점차 증가해왔다는 점입니다.

우선 경제적 여유 시간적여유 여행의 관계 중

첫 번째로 경제적 여유를 들어

가설 1. 돈이 있어야 여행도 가지 않을까? 국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해외 여행의 수요와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로. 시간적 여유 및 선호의 차이를 들어

가설 2. 여행을 누구나 좋아하진 않을 것. 여행의 수요와 소비는 경제적 이유보다도 시간적 여유와 선호도의 차이가 더 중요하다.

가설 두 가지를 세워 보았습니다.

앞선 가설을 세워, 이중 어느 것이 더 실제에 가까운 지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었고, 우선 가설 1을 검증해 보고자 oecd회원국을 대상으로 GDP, GNI, 고용인원 및 실업률, 연평균 임금 등에 대해 조사하여 시각화하여 비교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지표만을 본다면, 각 나라별로 그 시기의 정황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정량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제수준과 여행 수요의 절대적 관계를 찾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번 째 가설인 사회 문화적인 관점으로 여행에 대한 수요를 워라밸, 욜로 등 개인의 삶의 태도와 사회 문제와 연관지어 보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돈은 모아봤자, 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제 알바채용사이트 알바천국 조사결과, 청년세대가 올 초 버킷리스트로 가장 원하는 것 1위는 여행으로 두드러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올 연말 조사된 알바몬과 잡코리아의 조사결과, 취준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는 것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요컨대, 청년세대는 여행을 원하지만 실천을 하고 있는지 까지는 진단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관련 연령별 축국자. 수를 살펴 보면, 오히려 3040세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40세대는 주로 직장인이며 출국. 목적이 정말 오로지 투어였을지, 혹은 출장을 간 김에 여행을 즐겼기 때문에 여행이라 기재했을 지, 그들의 의도까지 파악한 목적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그렇다면 누가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 둘 다 있는가에 대해 고려한 결과

경제성장기에 유년기를 보내고 중장년기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세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꼽았습니다.

이들은 저희가 앞서 살펴보고자 했던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를 모두 충족하며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에도 걸쳐있는 세대입니다.

앞서 말한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 모두 갖춘 이들을 중심으로 여행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문기관 또한 이러한 예측을 내놓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현재 나라 경제 상황은 하강국면이라는 말이 많은 반면에

여행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조사 중 자료를 참고하다 보면 출처에 따라

어느정도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 보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소비라는 기준에 맞춰 한국은행 통계자료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민간소비지표는 현2.7% 7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항목이 온전히 여행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여가시간에 하고 싶은 것 조사.(깃허브 업로드함)

결과를 같이 보면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결론. 01. 가설 1 국가 경제수준과 여행의 수요는 크게 관련있지 않다.

결론 02. 가설 2 상대적으로 가설 1보다는 불황에도 성행하는 해외여행. 국가의 경제 수준보다, 워라밸 욜로 등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이뿐 아니라 그에 따른 경제력도 있어야 함을 청년세대를 통해 알아보았고 굳이 비교하자면, 가설 2가 더 팩트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짐.

시사점. 조사 과정 중 새로이 깨달은 점, 실제 출국자 수의 추이는 3040세대가 높다고 조사된 바가 있지만, 이에 대한 추정치를 실질적 목적까지 판단하기에는 다소 모호하다고 여겨짐.

불황에도 이어져 온 여행수요에 관한 데이터와, 분위기상 경제 비관 전망에도 민간소비지표는 상승세 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워라밸도 중시,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정년을 앞둔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

시사점2. 청년세대가 여행이라는 버킷리스트를 실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원과 취준 부담. 언제가 될 지는 모르나,,,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된다면 청년세대의 여행지출액의 상승까지는 섣부르지만, 연도별 출국객 규모와 민간소비 상승세, 사회적으로 여행을 선호하는 분위기 및 여행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정치외교적 상황 및 경제정책까지는 당시가 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으므로 이는 경제와 문화적인 관점상 바라 본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

느낀점~~~~~~~~

과거 데이터.14~17

**"불황에도 해외여행"…여행업계, 지난달 해외여행수요 '최대'**

입력 2016-02-01 18:28

**제주항공, 3분기 역대 최고 실적…경기불황에도 활활**

기사입력2014.10.27 오후 4:54

**불황에 해외여행도 '알뜰형'…여행객 늘어도 1인당 지출 제자리**

기사입력2017.07.11 오전 6:12

최종수정2017.07.11 오전 6:13

버킷리스트를 실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재원이 없어서(36.2%)‘라고 응답했다. 이어 ’시간이 없어서(31.7%), ‘게을러서(25.6%)’ ‘기타(6.6%)’ 순으로 답했다. (파이차트 작성 바람)

-잡코리아, 알바몬 조사 결과-